

## Beyond HR: People+(피플플러스)를 런칭하며...

"우리는 과거 Human Resource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만 한다. 대상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서, 전 생애적 관점에서 개인과 조직,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피플플러스는 열린 場을 제공할 것이다."

기하급수기술이 몰고 온 혁신의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오늘날 모든 경영자들과 HR 부서의 소명이 되었다. 하지만 어떤 기업과 조직도 과거의 경험과 일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극복과 적응적 조직구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시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 HR을 넘어 People Management 차원에서 담론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며 그 방향을 탐색해가는 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캐럿은 지난 19년 동안 HR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소명을 다해왔으며, HR 전문가들의 Networking Hub로서, 동시에 새로운 HR Agenda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People+(피플플러스)를 런칭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통적 HR을 넘어 통합적, 전생애적 관점에서 People Management의 담론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People+는 Technology, Mindfulness, Global, Startup 등 크게 4가지 주요 category를 포괄할 예정이다. 먼저 People+Tech는 기술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람과 조직의 Issue들을 다룰 것이며, People+Mind는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analog적 인간역량을 다룰 것이다. 또한 People+Global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best practice들을 공유할 것이며, People+Startup은 혁신적인 Startup과 전통기업간의 융합과 스타트업을 위한 people management와 조직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피플플러스는 참여자 중심의 열린 컨퍼런스를 지향한다. 사전에 주제에 대하여 기본 agenda들을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activity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전-현장 컨퍼런스-사후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현업전문가 중심의 연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insight를 얻을 수 있게 하고, 현업의 적용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다양한 industry의 HR전문가 networking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3월호)는 '돈이 넘쳐나는 시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특집 기사를 다루었다. 저자는 금융자본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Human Capital(인적자본)이 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인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Human Resource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만 한다. 대상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서, 전 생애적 관점에서 개인과 조직,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피플플러스는 열린 場을 제공할 것이다.

CEO James Roh(노상충)

어떤 조직도 내부 인적자원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잘 할 수는 없다. \_피터 드러커